

한글 필기행동의 연구

이 광오
영남대학교 심리학과

A Study on Hangeul Writing Behavior

Kwangoh Yi
Department of Psychology, Youngnam University

요약

한글 필기행동에서 나타나는 실수들을 분석하였다. 단어이하의 수준에서 오철(spelling error)와 오기(slips of the pen)가 관찰되었다. 오철은 부분적인 철자지식에 기인하는 것으로, 음소를 철자로 변환하는 과정에 영향을 받는 것임을 시사하는 사례가 발견되었다. 오기에는 지속 예기 생략 등이 있었으며, 철자정보를 운동패턴으로 변환하는 과정에서 나타나는 것 같았다. 또한 획과 관련된 실수들도 발견되었다. 전반적으로 필기과정에는 발음관련정보의 영향이 큰 것을 부정할 수 없었다.

1. 서론

언어행동은 그 실현양상에 따라 글말과 입말로 나눌 수 있다. 또 입출력의 방향에 따라 이해와 생성으로 나눌 수 있다. 입말의 이해와 생성에 대한 연구는 각각 음성지각과 발화의 연구이며, 글말의 이해는 독서과정의 연구이다. 이러한 연구들은 비교적 활발히 행해져 왔다. 그러나 글말의 생성에 관한 연구, 즉 타자 또는 필기과정의 연구는 미진한 감이 있다.

필기행동은 필기자 자신의 의도를 시각적부호인 문자를 사용하여 실현하는 과정이다. 여기에는 의도를 언어적표상으로 변환하는 과정과 언어적표상을 운동적표상으로 변환하는 과정 그리고 실제적인 근육운동의 과정이 포함된다. 발화와 필기에서 공통과정은 문장표상의 생성과정일 것이다. 이 과정에서 문장의 통사의미구조의 생성, 어휘선택, 파생 및 굴절을 위한 규칙적용 등의 처리가 이루어지며, 단어, 음절, 음소등이 단위로서 사용되는 것으로 보인다. 발화의 경우, 문장은 최종적으로는 음운적표상의 형태를 취할 것이다.

필기의 경우는 이에 부가하여, 철자정보가 심성어휘집에서 인출되는 과정이 필요한 것으로 생각된다. 철자정보의 표현형식은 표기체계 및 개별언어의 정서법을 반영할 것이다. 로마자의 경우, 문자는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직선배열을 하나, 한글의 경우는 모아쓰기의 특성상 평면적 배열을 하는데, 이 때문에 낱자와 글자는 분리하여 고려할 수 없다.

철자정보가 얻어지는 방법에는 우선 규칙에 의한 조합과 기억으로 부터의 인출 두 가지가 있다(Kreiner & Gough, 1990). 전자는 음운적표상을 철자적표상으로 변환하는 규칙으로, 독서과정에서 말하는 GPC 규칙과 대조되는 것이다. 아마도 음소문자 체계에서, 비단어를 표기할 때에, 규칙에 의한 조합이 사용될 것이다 (비단어의 철자가 규칙에 의해서가 아니라 유추에 의해서 조합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이에 대한 논의는 본논문의 범위를 벗어나므로 생략한다). 규칙에 의한 조합이 가지는 문제점은 음소와 자소(grapheme)의 대응이 매우 불규칙적일 수 있다는 것이다. 이것은 한글의 경우도 예외가 아니다. (1) 과 (2) 에서 보듯이, 하나의 음운적표상은 여러개의 철자표현을 가질 수 있다.

(1) /시렴/ -> 실험, 시험, 실업

(2) /마딸/ -> 마딸, 맛딸, 만딸, 맛딸, 딸딸, 맛딸, 맛달, 맛달, ...

다른 하나는 심성어휘집(mental lexicon)에서 각 단어의 철자정보를 인출하여 필기에 이용하는 것이다. 자발적 필기의 경우, 이것은 음운적 정보에 의해서가 아니라, 의미정보에 의해서 심성어휘집에서 인출되는 것이다. 기억인출에 의한 철자는 불규칙적 단어의 표기에 필수적이다.

이렇게 보면 철자정보 생성의 두가지 방법은 독서과정에서 이중경로(dual route)와 흡사하나, 이것은 양자택일의 문제는 아니다. 아마도 두 방법은 동시에 병렬적으로 사용되며 상호보완적으로 작용하여 최종적 철자정보 생성에 기여할 것이다.

필기행동의 특징은 그 속도가 발화에 비해서 느린 것이다. 특히, 필기동작에서 많은 시간이 소요된다. 바로 이점이 필기행동에 외부요인들이 개입할 소지를 준다. 필기중에 의도와 문법표상의 생성, 어휘선택 등을 재시도할 시간적인 여유가 발화의 경우보다 훨씬 많아 보인다. 또 각종 감시과정, 즉 필기결과의 시각적, 음운적 확인이 가능할 것이다. 아마도 필기보다 먼저 생성된 발화가 입속말(inner speech)로서 필기동작과 상호작용할 수 있다. 필기동작은 음운적표상의 생성이 완료한 상태에서 이루어진다고 볼 수 있다.

2. 방법

필기행동에서 나타나는 실수를 수집하였다. 전부 1990년 3월부터 1991년 8월까지 18개월간 수집한 것이다. 가장 먼저 수집한 것은 본연구자 자신이 범한 실수와, 학생들의 시험지와 레포트 등에서 발견한 것이었다. 이것들은 우선 양적으로 많지 않았을 뿐 아니라, 후자의 경우에는 자발적인 수정으로 인하여 실수자체가 정확하게 판별되지 않는 것이 많았다. 그래서 대량으로 오류를 수집하는 방법을 사용하기로 하였다.

대상자는 모두 대구 일원의 사립대학교 학생들로 전부 264명이었다. 우선 학생들에게 백지를 나누어 준 후, 제목을 주어 작문을 하도록 하였다. 제목은 "나의 자서전", "나의 희망" 등 이었다. 작문에 앞서 다음과 같은 지시를 주었다. 반드시 볼펜이나 만년필을 사용할 것. 한번 쓴 것은 어떠한 방법으로든 지우지 말 것. 고칠 필요가 있을 때는 원고지 교정방식을 사용할 것 등이었다. 소요시간은 대략 30분이었다.

3. 결과

수집한 필기실수는 모두 442사례였다. 이중 103사례는 본연구자 자신의 필기실수였다. 필기실수에는 자발적으로 교정된 실수와 교정되지 않은 실수가 있었다. 교정되지 않은 필기실수의 판정은 본연구자의 직관에 따랐으며, 의심나는 경우에는 사전에 참고하거나 다른 사람의 의견을 들었다. 때때로 필기실수 당사자와의 면접을 실시하여 필기행동을 직접확인하였다. 실수에는 문장의 의미에 관한 것, 통사구조에 관한 것도 있었으나, 본고에서는 다루지 않았다. 본고에서는 단어 또는 단어이하의 수준에서 나타나는 실수를 집중적으로 다룬다.

필기실수에는 발화실수와 공통적인 것이 많았다. 이것은 필기가 발화와 공유하는 처리과정 때문일 것이다. 예를 들면 어휘선택과정에서 나타나는 실수들이다. 이 유형에 속하는 사례들은 자발적으로 교정된 부분을 가지고 추측한 것이다.

- (3)자기가 처한 -> ... 속한 (4)대학교에 재학중 -> ... 재직
- (5)진단방법을 -> 진료 (6)실망하고 -> 절망
- (7)섭식은 양보다는 칼로리에 의해서 -> ... 알칼리에 의해서

유사한 예로서, 이른바 malapropism 에 해당하는 예들을 들 수 있다. 이것은 부정확한 어휘의미지식에 기인하는 것으로, 목표단어의 정확한 철자 또는 발음을 모르는 상태에서, 목표단어를 그와 유사한 발음 또는 철자의 다른 단어로 대체하는 것이다.

- (8)조국을 살리기 위해 희생한 -> ... 회사한
- (9)음악에는 문외한입니다 -> ... 무외한
- (10)지향 -> 지양 (11)어릴 적 아버지를 여의고 -> ... 여위고

또, 많은 사람들의 작문에서 구어체적인 경향이 강하게 나타나는데, 이것은 필기 과정이 입속말(inner speech)에 의해 통제될 가능성을 시사한다.

- (12)부터 -> 부텀 (13)그렇지만 -> 그치만 (14)이야기를 -> 얘기를

필기행동 고유의 실수

다음은 발화에서는 나타나지 않고, 필기행동에서만 나타날 수 있는 실수들이다. Ellis(1988)는 필기실수를 철자오류(spelling error)와 slips of the pen 으로 분류하고 있다. 전자는 철자에 대한 부정확한 지식 또는 부분적인 지식에서 기인하는 오류이고, 후자는 정확한 철자를 알고있음에도 불구하고 문맥상의 요인이나 운동상의 요인에 의해서 나타나는 실수이다. 다시 말하면, 전자는 지식상의 오류이고, 후자는 수행상의 실수이다. 본연구에서도 이러한 분류를 그대로 따르되, 전자는 오철(誤綴), 후자는 오기(誤記)로 부르기로 한다.

1. 오철(spelling error): 철자오류

저빈도의 내용어, 어미변화, 기능사 등에서 주로 발견되며, 부정확한 철자지식,

부분적인 철자지식, 또는 문법규칙의 잘못된 적용 등에 의한 것이다. 필기습관, 개인의 발음특성 등에 영향을 받는다.

1.1. 부정확한 철자지식에서 비롯되는 오류

현행철자법상으로는 오류이나, 개인이 그것을 의식하지 못하는 경우로서, 개인차가 있을 것이나, 아래의 예는 비교적 많은 사람에게서 관찰되는 것이다.

- | | |
|------------------|----------------|
| (15)역할 -> 역할 | (16)햇빛 -> 햇빛 |
| (17)있습니다 -> 있습니다 | (18)도롱뇽 -> 도롱뇽 |

이것들은 개인에게 오류로서 의식되지 않으며, 받아쓰기 등을 시켰을 때에도 반복해서 나타나며, 정정해 주어도 완강하게 지속되는 것들이다. 이하의 사례들은 부정확한 지식에 의해서가 아니라 부분적인 지식에 의해 나타나는 것이며, 오류일 가능성을 개인이 인정하는 것들이다.

1.2. 발음에 의한 오류

기능사 및 어미에 집중해 있으며, 자발적인 수정이 거의 가해지지 않는다. 특정음소의 변별에 어려움이 있는 방언의 영향이 두드러진다.

- | | |
|---------------------------|-------------------------|
| (19)움직이는 것처럼 -> ... 것처럼 | (20)남이 하는대로 -> ... 하는대로 |
| (21)거기서 -> 그기서 | (22)앞세우는 -> 앞새우는 |
| (23)웃기는 -> 우끼는 | (24)굳이 -> 구지 |
| (25)나는 왜 태어났는가 -> ... 난는가 | (26)바랍니다 -> 바랍니다 |

1.3. 글자선택의 오류

어미나 받침에서 관찰되는 것으로, 양자선택이 가능한 상황에서 선택시의 실수로 일어나는 사례들이다.

- | | |
|----------------|----------------|
| (27)널리 -> नी이 | (28)특히 -> 특이 |
| (29)자연히 -> 자연이 | (30)겪으신 -> 격으신 |

1.4. 원형어간 및 형태소 유지

- | | |
|---------------------------|-------------------------|
| (31)무엇을 써야하나 -> ... 쓰야하나 | (32)서로 도우면서 -> ... 돕우면서 |
| (33)어찌다가 눈 떠보니 -> ... 뜨보니 | (34)상이성이 커서 -> ... 크서 |
| (35)보리밥을 안 먹고 -> ... 앓 먹고 | (36)그만큼 -> 그 많큼 |

1.5. 글자분석오류

- | | |
|-------------------------------|--------------|
| (37)차지한다고 -> 차이한다고 | |
| (38)최선은 다했지만 더 나은 -> ... 더 낫은 | (39)바침 -> 받침 |

2. 오기 (slips of the pen)

정확한 철자지식을 가지고 있으나, 전후문맥의 영향으로 나타나는 오류이다. 가장 많이 나타나는 것이 대체(substitution)로서, 선행문맥에 의한 것과 후속문맥에 의한 것이 있다. 전자를 지속, 후자를 예기로 분류했다. 예기의 사례가 지속의 사례보다 많았다.

2.1. 예기(anticipation)

같은 단어내의 또는 다른 단어내의, 앞으로 나올 글자 또는 낱자에 의해서 목표글자 또는 낱자가 대체되는 경우이다.

2.1.1. 글자의 예기

- (40)남의 것을 -> 남을 것을 (41)이러한 행위는 -> 이러행 행위는
(42)큰 물체가 이동하면 -> 큰 물체가 이 (43)3학년때 -> 3년년때

2.1.2. 낱자의 예기

원인낱자와 목표낱자의 위치가 모두 같다. 즉 초성과 초성, 종성과 종성 그리고 중성과 중성 사이의 대체가 거의 전부였다. 초성이 다음에 나올 중성의 예기에 의해 대체된다는지, 종성이 다음에 나올 초성의 예기에 의해 대체되는 사례는 거의 없었다. 중성의 예기는 총 27사례로 이중 대체는 9사례이었으며 나머지는 부가였다. 초성에서의 사례는 8사례가, 중성에서의 사례는 7사례가 관찰되었다. 종성에서의 예기가 압도적으로 많았다.

- (44)노력합니다 -> 노력 (45)장단점이 있다 -> 장담점
(46)나의 자서전을 -> ...자선전을 (47)외곽으로 -> 외
(48)내겐 없는 성격을 -> 내겐 없는 경 (49)이상한 -> 이항
(50)무의식적으로 -> 무의석적으로 (51)기억이 많고 -> 거

중성예기에서는 원인낱자가 모두 바로 뒷글자에 있었으나, 초성과 중성에서는 원인낱자의 거리가 좀더 먼 경우도 있었으며, 목표낱자와 원인낱자가 매우 유사한 경향이 있었다.

- (52)미술에도 소질이 -> 미술 (53)무엇보다 재학시절에 -> 무엇보대

2.2. 지속(perseveration)

선행하는 원인글자 또는 원인낱자가 후속하는 목표글자 또는 목표낱자에 영향을 주어 목표낱자 또는 글자가 원인글자 또는 낱자에 의해 대체되는 현상이다.

2.2.1. 글자의 지속

- (54)심리학이란 -> 심리학 학 (55)노력하려 애쓰고 -> 노력하려 노
(56)멋있고 싶구요 -> 멋있고 있 (57)의도대로 -> 의도도

2.2.2. 낱자의 지속

- (58)내 자신이 -> 내 자진 (59)먼 것 -> 먼 멋
(60)현주소 -> 현주소
(61)내 성격을 -> 내 생 (62)유난히 이쁘다고 -> ...이뻐
(63)서로 협력하는 -> ..협력 (64)설탕 -> 설탈
(65)박수를 -> 박속을

2.3. 생략

글자 생략의 경우는 예기로 볼 수도 있으나, 낱자의 경우는 그렇지 않으므로 따로 분류하였다.

2.3.1. 글자의 생략

- (66)나를 나타내기 위한 -> ...나타기 ... (67)외양간을 -> 외양을
(68)내 젊음을 다 바쳐 -> 내 젊을

2.3.2. 낱자의 생략

받침만이 생략된다. 이웃하는 동일한 받침중의 하나가 생략되는 사례가 많았다.

- (69)동광출판사 -> 동과 (70)일컬을 수 있는 -> 이컬을 수 있는
(71)소중한 것을 볼줄 아는 -> ...보줄 아는
(72)나도 이런 부분에 -> 나도 이러

2.4. 기타

다음의 사례들은 이상의 어떤 분류에도 속하지 않는다. 위의 분류들이 문맥과 관련된 대체이거나 생략인데 비해서, 이것들은 특정한 문맥과 관련없이 나타나며 획과 관련된 것이 특징이다.

다음의 사례들은 낱자에 획이 추가되거나 생략된 예이다.

- (73)열심히 공부하여 -> 열 (74)외국문물의 무분별한 도입 -> ...무분별한..
(75)실망감이 컸다 -> 실망감이 컸다 (76)한겨레신문 -> 한계레신문
(77)경산군 자인면이 -> ...자인면 (78)심리학입문시간에 -> ...시크
(79)낭만이 깃든 -> 낭만이 깃 (80)대면접촉을 굉장히 -> ...굉장
(81)쾌활하며 -> 괴활하며 (82)접근되어야 한다 -> ...한나

본연구에서는 시각적유사성에 근거한 실수들이 거의 관찰되지 않았는데, 위의 사례들은 어쩌면 시각적 실수로 볼 수도 있을 것이다. 순전히 시각적 오류로 볼 수 있는 사례는 다음과 같다.

- (83)그대 모습 보며 -> ...보여 (84)영대 -> 영

다음의 사례들은 획의 방향이 바뀐 사례이다.

(85)농숙하게 -> 농숙하게 (86)간략한 신상서이다 -> 간략

다음은 낱자의 반복에 의해서 나타나는 병서의 예로, 초성낱자에서만 관찰되었다.

(87)다시 반복되는데 -> ...때 (88)월트 디즈니같이 -> ...같이
(89)내가 겪었던 -> 내가 겪 (90)4시간 30분씩이나 -> 4시까
(91)스스럼없이 -> 쓰 (92)무척 -> 무쩍

이와는 반대로 병서형의 낱자가 단독낱자로 바뀌는 사례도 있었다.

(93)환자 -> 한자 (94)수정과 -> 수정가
(95)꿇다 -> 컷다

4. 논의

수집된 사례들이 시사하는 바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글자와 낱자는 필기 행동의 중요한 단위이다. 둘째, 필기동작이전에 글자의 모양은 결정되며, 도중에 추가되거나 생략되거나 하지 않는다. 셋째, 중성은 비교적 독립적인 단위이다. 넷째, 필기 행동은 발화과정의 영향을 받는다.

오철은 부분적인 철자지식을 음운적정보에 의해 생성된 철자정보로 보완하는 과정에서 일어나는 것으로 생각된다. 그러나 음운적정보를 철자로 변환하는 과정에서 생성된 철자가운데는, 기억에서 인출된 철자와 일치하는 것이 여러 개 있을 수 있다. 이러한 경우에는 선택과정이 필요하다. 선택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현재로서는 자료가 불충분하나, 선택오류가 다양한 점으로 미루어 확률적인 과정으로 생각할 수 있다.

오기는 철자정보에서 운동패턴으로의 변환과정에서 일어나는 실수로 생각된다. 글자 또는 낱자의 지속 및 예기, 생략등은 이 과정과 관계가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그 증거는 받침과 관련된 실수에서, 필기행동고유의 실수가 관찰되기 때문이다. 다음과 같은 실수는 낱자의 지속의 한 예이나 발음상의 변화를 동반하지 않는 실수이다.

(96)잘못들기 -> 잘못듣기

'들' 이 '듣' 으로 오기되어 있으나 양자는 발음상 동가이므로, 오기의 원인이 선행하는 발음관련정보에 의한 것이라 할 수 없다.

받침의 오기가 많은 것은 다음과 같이 해석할 수 있다. 낱자들은 언제나 그 위치 정보를 가지고 결합되어 있는데, 초성과 중성은 보다 강하게 결합할 가능성이 있다. 이것은 발음이 음절을 대상으로 하는 것과 관계가 있을 것이다. 최소형의 음절은 V 또는 CV 이므로, 이에 대응하는 글자는 초성과 중성으로 이루어진 글자가 된다. 획과 관

련된 실수들은 운동패턴을 수행으로 옮기는 과정에서 생기는 것 같다.

그림 1은 Ellis(1988)의 필기행동 모델이다. 이 모델에서는 철자정보와 필기운동 패턴이 철자수준과 음운수준의 정보의 상호작용에 의해 결정된다. 또, 철자수준의 정보와 음운수준의 정보는 통사의미정보에 의해 심성어휘집에서 생성된다. 그리고 철자수준의 표상으로서 문자소(grapheme)를 가정하고 있는데, 이는 대략 로마자 한 글자에 해당하는 것이다. 한글필기행동에서의 글자와 낱자의 역할을 기술하기 위해서는 보다 명세화한 모델이 필요하며, 이를 위해서는 보다 다양한 사례의 수집과 분석이 요구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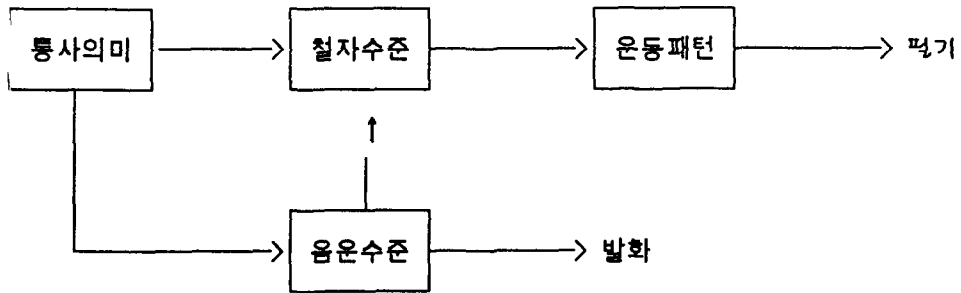


그림 1. Ellis(1988)의 필기행동 모델

참고문헌

Ellis, A. W. (1988). Modelling the writing process. In G. Denes, C. Semenza, & P. Bisiacchi (Eds.), *Perspectives on cognitive neuropsychology*. Lawrence Erlbaum Associates Inc.

Kreiner, D. S., & Gough, P. B. (1990). Two ideas about spelling: rules and word-specific memory. *Journal of Memory and Language*, 29, 103-118.